

김지사 “완·전 통합, 전북 백년대계 승부수”

김관영 도지사, 15일 기자회견서
‘전북 100년’ 3대 핵심 전략 제시
완·전 통합 피지컬AI 메가시티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거점화
군산조선소 국가전략기지 재도약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화,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해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군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김관영지사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반도체 확장, 군산조선소 재도약으로 “전

도정 주요 현안 기자회견 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풍

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

를 갖춘 반도체 확장의 준비된 선택지”

라며, “정부의 전국 분산형 반도체 전략

에 발맞춰 전북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 확장 거점으로 키우겠다”

고 말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문제는, “지난 3년간

405억 원을 투입해 조선산업 생태계를

지켜 왔다”며, “군산조선소를 국가 조선

산업과 함께 안보 협력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여민유지

(與民由之)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

고 길을 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전북 도립·군립공원 반려견 동반 시범 허용 추진”

‘작지만 중요한 공약’ 두 번째 발표
생태훼손 낮은 구간부터 추진
예약제·인원 제한 도입 검토



안호영 의원

현재 국내 반려 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

이이다. 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 가족들이 공통적으

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

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

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이

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

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보인다.

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준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

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목

줄 착용(2m 이내), 인식표 부착, 배변 관

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

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도 함께 운영한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뛰는 현장 의정



혁신당 “민주당 전략공천 방침 文·李 원칙 부정 밀실 정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논평서

정청래 전략공천 원칙 비판

“여론조작 판결에도 책임 회피”

해 공당으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의 전략공천 방침은 밀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도민을 향한 선전포고다”며 “여론 조작과 금품 동원으로 공천장을 훔친 캠프의 범죄에 책임지기는커녕, 또다시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행태는 도민의 주권을 기득권의 전유물로 여기는 안하무인 격처사다”고 맹비난했다.

조국당은 “민주당의 부패는 구조적이다. 경선 브로커 개입부터 공천현금의혹까지, 도덕적 파산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전제한 뒤 “견제 없는 권력의 부패는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돌아왔고, 민주당은 작금의 사태를 남 말하듯 논평할 자격이 없다”고 자성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 즉각 ‘무공천’을 선언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과오로 치러지는 선거에 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 정치의 수치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3억 5천만원 부과

납부기한 2월 2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 납부 가능

전북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도내 14개 시군에 총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전주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8억 2,000만 원, 군산시 8억 원, 정읍시 5억 2,0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공약을 통해 반려가족의 여가 활동성이 개선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그 외 시·군은 동 지역 7,500원에서 4만 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앱과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장정철 기자

도 기대된다. 나아가 전북이 반려문화와 환경 보호가 조화되는 선도적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여성농업인 경제·건강 지원정책 확대

전북도·농식품부, 15일 원광대서

여성농업인 정책 간담회 개최

공동경영주 취업 농업인 자격 유지

특수건강검진 51~80세로 확대

도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폭을 넓히고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익산시장,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등 전국 여성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원광대병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공동경영주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공동경영주가 취업할 경우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돼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오는 3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경업 소득과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날 간담회에는 취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직접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증진과 영농·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넓혔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올해 7,102명을 대상으로 15억 3,000여만 원 규모의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만 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 공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올해 8만 명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51세 미만 여성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검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참석자들도 검진 기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생생카드 사업에 4만 4,500명이 혜택을 받고, 농작업 편의장비 2,000대 보급, 출

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40명, 농번기 공동급식 340개 마을 운영, 여성농업인 센터 6개소 운영 등이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민수당을 농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해 공동경영주, 경영주와 농업인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역시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했다. 기존 팀 단위였던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를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시켜 전담 체계를 갖췄다.

장정철 기자



전북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전북도>

전북 서부권 초미세먼지 치격…주의보 발령

서부권 $104\mu\text{g}/\text{m}^3$ 기준 초과

대기 정체로 고농도 지속 우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mu\text{g}/\text{m}^3$ 을 넘길 때 발령된다.

이날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은 오후 14시 $82\mu\text{g}/\text{m}^3$,

15시 $104\mu\text{g}/\text{m}^3$ 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한,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도 오후 15시 $89\mu\text{g}/\text{m}^3$ 를 기록하였으며 16시에 $75\mu\text{g}/\text{m}^3$ 이상을 넘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등을 참고하고 항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air.jeonbuk.go.kr)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림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항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등을 참고하고 항후 데이터 추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정부계약 선금관리법 발의 “선금 70% 관행 막는다”

부실업체 ‘선금 받고 불이행’ 차단
선금 한도 ‘50% 이내’로 법제화
이행능력·제재이력 의무 고려 명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사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는 부실업체에 까지 관행적으로 적용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금 지급 한도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시지급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헬세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국가 및 지자체 계약의 공정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 호텔·콘도 외국인 합법 채용 지정 ‘인력난 숨통’

E-9 관광숙박업 허용 전국 6번째
도내 77개사 조사…수요 67명

전북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력 필요 인원을 67명으로 파악했다.

응답 업체 53곳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으며, 직종별로는 건물청소원 55명,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 각 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 업체들의 건물 청소원 부족 인원은 82명, 주방보조원 7명, 음식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집계돼

인력난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는 오는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와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영 식당 근무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이직, 임금체불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보훈단체 신년인사회 개최

10개 보훈단체·가족 200여명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전북도는 전북상이군경 복지회관에 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함께한 보훈단체 신년인사회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보훈단체협의회(회장 최해봉)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도내 10개 보훈단체가 참여했으며, ‘보훈으로 하나 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해봉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보훈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단체가 중심이 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전북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셨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내 6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헤국보훈수당을 월 2만 원 인상하고, 도 보훈단체 종사자에 대한 업무수당도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JBT 광고 문의 033-262-0501
구매 문의 033-262-0502
www.jeonbuktimes.co.kr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 no! 장바구니 ok!



세탁비닐 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농진청 “표현체와 AI 결합” 형질조사 시간 ↓

정확도 90% 이상 6개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 개발…산업체 이전 계획

발한 표현체 기술과 인공지능 학습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 340만건 이상을 확보한 후 6개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을 완성했다.

정확도는 90% 이상이다.

이 기술들을 적용하면 일반 카메라(알자비(RGB) 영상)와 특수 카메라(초광광 영상)로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크기와 형태, 병 발생 여부, 생육 상태 등을 수치화해 분석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기술에 대해 관련 특허 4건 출원, 논문 1편 발표, 저작권 1건을 등록했다.

앞으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 역량 강화 기술 전수회를 열고,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3년 동안 개



농촌진흥청 디지털육종지원과 권수 진 과장은 “표현체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육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정혜민 기자

수요 기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주)하림 방문…금융지원 협의

환리스크 헛지 등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논의

이날 2026년도 경영 계획과 최근의 대내외 경영 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장 본부장은 지속되는 고환율 기조 속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며, 환리스크 헛지(Hedge) 등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또 장 본부장은 하림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견학하며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현황을 둘러보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기관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주)하림은 전북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향토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환율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리스크 관리를 비롯한 맞춤형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검역본부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결과 발표

‘럼피스킨’, ‘블루텅’ 등 국내 유입 미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결과에서 ‘럼피스킨’, ‘블루텅’, ‘아프리카마역’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 국내 유입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도기’, 등에모기, 침파리’의 채

집·검사를 통한 병원체 국내 잔존 여부 및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이번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을 진행했다.

예찰사업은 전국 7개 시도 138개 채집지점(거점센터 120개소, 공중포집기 18개소)에서 가축질병을 일으키는 매개체를 채집한 후 분류하고 질병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집지점의 경우, 거점센터는 2023

년~2024년 럼피스킨 국내 발생지의 지형, 환경 등 매개체 유입 위험도를 고려해 4개 시도(경기, 강원, 충남, 전북)

의 소(牛)농가 각 30개소씩 총 120개소

를 지정했으며, 공중포집기는 7개 시도(경기, 강원,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질병 유입 위험지역 18개소를 지정했다.

예찰 결과 총 41,993마리의 매개체가

채집되었으며 럼피스킨, 블루텅, 아프리

카마역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은 확인

되지 않아 국내 유입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 남원시 축산농가에서 채

집된 모기(Culex pipiens)에서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 일본뇌염바이러

스(JEV) 1건이 검출됐다.

검출된 일본뇌염바이러스는 국내에

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원체

로, 사람과 동물에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관리가 가능한 상황이

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

으로도 과학적 예찰과 분석을 통해 해

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

단하고, 신속한 럼피스킨 위협주의로 발

령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2026 WM로드쇼’ 성료

자산관리·방카·펀드 등 폭 넓은 정보 제공

장길환 본부장은 ‘고객 중심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 WM특화 접포인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융, 부동산, 세무를 아우르는 일대일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에 앞장서고 있다.

장길환 본부장은 ‘고객 중심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 WM특화 접포인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융, 부동산, 세무를 아우르는 일대일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장길환 본부장은 ‘고객 중심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 WM특화 접포인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융, 부동산, 세무를 아우르는 일대일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2026년 사업 운영 방향 논의…노동시장 진입 제공

담회는 참여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전주상공회의소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인턴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사업진흥팀으



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국내 6개 대학 참가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오늘 KAIST 대전 문자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기업가정신 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

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설명 △사업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혁신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훈련을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기업가정신 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

/정소민 기자



中企, 기후·환경 분야 협력 애로사항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5일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 규정’(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영진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별지 서식을 매일 기록해야 하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기웅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119구급대를 통한 응급환자의 이송·진료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수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협력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원광대학교병원 등 도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전북소방본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참여했다.

협약식 자리에는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방상윤 전북 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응급환

/정혜민 기자

국립군산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18년째 이어와..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저 장학금 지급 전북권 1위

국립군산대학교 2026년도 대학 등록금이 전북권 내 최저 수준으로 동결됐다.

15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학부모 및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위해 2026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 대학(학부) 등록금 동결은

지난 2009학년도 동결 이후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립군산대 학기 등록금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업기숙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 대리는 "국가 중심대학으로서 공교육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학부 등록금 동결

이지만 학생 복지 우선 정책과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녀너지 않은 국립군산대 대학재정을 전달했다.

반면 엄 총장 직무대리는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 통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 및 재정 효율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대 학기 등록금을 살펴보면 인문 사회계열 1,659,000원, 예능·공학계열 2,119,000원, 이학·체육계열 1,978,000원이다.

여기에 국립군산대 장학금 지급은 전북권 4년제 대학 중 1위를 기록해 국립

군산대만의 자랑이기도 하다.

국립군산대 장학금 지급을 보면 지난

2024년도 기준 재학생 1인 평균 장학금

은 3,900,000원으로 87.2%가 혜택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로



15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학부모 및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위해 2026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해 보면 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국립군산대 신입생 등록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이고, 재학생은 2월 23일부터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년 간담회

활동 공유·활성화 방안 협의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26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년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신년 간담회는 2025년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을 공유하며 2026년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국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기자

참석자들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아울러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열어가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국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 주도 탐구로 수학 학력신장 이끈다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주도 수학 탐구 활동을 통해 학력 신장과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 전북 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학력신장을 수학교육 정책의 핵심 측으로 삼아 수학 문해력 향상과 문제해결력 강화, 단계별 학력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수학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 수학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문제해결반 운영을 40팀으로 확대한다.

또 문제해결 중심의 학생 수학 학력신장 캠프를 운영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특히 학력신장을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수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을 기인다.

/정혜민 기자

르는 과정으로 보고, 학생 주도 수학 탐구 활동과 수학동아리 100개팀, 수학중점학교 67개교 운영 등을 통해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 맞춤형 수학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초등수학학습 지원 시스템과 온라인 수학 학습사이트를 활용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연계되는 개별화 학습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학생 학력신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문형심 청의인재교육과장은 "모든 학생이 수학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수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국가대표 센터백' 변준수 영입

19일 김천상무 입대 장기적 시각 전략적 영입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대한민국 수비의 핵심 유망주로 꼽히는 센터백 변준수(24)를 영입하며 수비 라인의 깊이를 더했다.

전북현대는 15일 광주FC에서 활약하며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센터백 변준수의 영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전북의 수비진 세대교체

를 이끌 적임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변준수는 190cm, 86kg의 탄탄한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장악은 물론, 정확한 패스를 통한 후방 빌드업 능력이 탁월

한 선수다.

지난 두 시즌 동안 광주FC의 핵심 수비로 활약하며 K리그 통산 71경기 5득점 3도움을 기록,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2025시즌에는 리그 33경기에 출전하며 기복 없는 경기력을 선보여 리그 정상급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잠재력은 대표팀에서도 확인됐다.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국제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고, 2025년에는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을 통해 A대표팀 데뷔전까지 치르며 차세대 수비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 영입의 특징은 변준수의 군 입

대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변준수는 전북현대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마친 뒤, 오는 19일 국군체육부대(김천상무)에 입대한다.

전북현대는 변준수가 군 복무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기량으로 복귀할 것을 확신하고, 장기적인 전력 강화를 위해 영입을 결정했다.

이는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전북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변준수는 "K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의 일원이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입대를 앞둔 상황임에도 나를 믿고 선택해 준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 생활 동안 전북현대 선수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 전역 후 전주성에서 팬들에게

전북교육청은 2025년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수업 과정 모니터링 강화와 강사 전문성 강화 및 수업 제반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발명캠프' 창의력 도전 기회 마련

전북도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로운 발명 캠프가 운영되며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군산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시즌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발명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발명캠프 운영은 2026.01.12~13일 1기 진행에 이어 19~20일 2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군산 관내 초등 3~6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전북군산교육지원청은 발명캠프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지원 공문을 보내 캠프 운영 학생들을 선정했다.

특히 발명캠프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기기 활용한 학생들

/김영태 기자

겨울철 독감 생활속 예방수칙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

실내 습도
40~60%로
유지 하기

손으로 눈, 코
입등 만지는
습관 자제하기

과로는 피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균형잡힌 식사로
면역력 높이기



부안군, 청년 주거 안정 돋는다

주거비용 지원사업
26일~2월 2일까지 신청
월 최대 10만원 지원

부안군은 고향을 응원하는 소중한 마음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돋는 2026년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 중 주거 여건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45세 까지(1980년생~2006년생)이다.

월세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기존 지원자라 하더라도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자금환경주거등추진기업
경쟁력 강화 근로여건 개선

전북 고창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연계·추진해 기업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응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

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제조업은 최대 5억 원, 비제조업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여력 확보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작업장 및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사업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작업 효율성과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기업이 임차한 기숙사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의 모집공고는 이번 주부터 2월 중까지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세부 신청 요건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맞춤형 지원사업은 자금, 근무환경, 주거 여건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흔들림 없는 시정으로
전북권 4대 도시 도약”

김제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정성주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중점 사업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는 2026년 신규사업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했으며, △김제형 미래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 △첨단 로봇 실증지구 조성, △김제관 외삼문 복원 사업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 △김제시スマ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및 조성 등 시의 중장기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전략사업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기조와 연계한 김제시민의 지역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자문을 통한 전략회의 고도화로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는 등 전략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

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전북권 4대 도시 도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청 직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소속 직원들 자발적 참여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

고창군청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고창군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고물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소외되어 쉬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따뜻한 명절을 지원하는 데 의지를 더했다.

고창군은 매년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을 비롯해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발



굴,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이어지며, 군민 모두가 서로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자가 먼저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며, 행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마켓’ 설맞이 할인 프로모션 진행

19~31일까지 최대 30%

로 만나볼 수 있다. 고창군은 이번 프로모션을 위해 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이벤트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빠른 방문이 필요하다.

고창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고창마켓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 기간 고창마켓 자사물을 방문하는 전 회원과 신규 고객은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

로 김제시, 2026년 상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생모집

김제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2026년 상반기(1차)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과정별로 20명씩(스마트폰 활용교육 15명) 선착순 모집하며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컴퓨터기초 및 Windows 11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한글 2020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월 2일부터 시민정보화교육장(시 보건소 3층)에서 평일 오전에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https://www.gimje.go.kr/reserve>)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방문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효숙 정보통신과장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할 과정을 개발해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시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5% 세액공제

2월 2일까지 신청 받아

김제시는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5%로, 이달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에 신청하면 3.7%, 6월 2.5%, 9월 1.2%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행안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참여자 43여명 교육 실시

부안군 행안면(면장 은진)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3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협약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참여자 활동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행안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며,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4팀으로 구성됐고, 관내 주요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행안면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들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부터 소감을 밝혔다.

(제)고창식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복분자 음료 2종 '고창복분자 그린'과 '고창복분자 레드'를 출시하고, 유통망 확보를 위해 농협식품㈜, 상하농원㈜, 관내 농협(고창농협, 대성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흥덕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고창복분자 그린'과 '고창복분자 레드'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개발한 자체 제품으로, 연구 성과를 실제 시장에 선보이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고창복분자 그린'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미숙과를 활용한 건강 중심의 물 대용 음료로, 중장년층을 주요 소비층으로 설정했다.

'고창복분자 레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완숙과를 사용한 무가당 음료로, 기호성과 최신 소비 흐름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제품이다.

연구원은 계약 재배를 통해 복분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판로를 확대해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특산물 부가가치를 창출 및 관광 연계 상품 개발 가능성을 높여 고창 복분자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제)고창식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복분자 음료 출시와 협약은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로 연결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기한 다음달 2일까지

부안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301건 2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 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자 규모에 따라 5종으로 나뉘어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별도 종이 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농촌지원분야 시범사업 신청

김제시는 2026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월 6일까지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 농촌지도사업은 7개 사업(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농산물 디자인 개발 지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현지심사, 발표심사, 태당성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진안군, 2026년 생활개선회
연시총회 개최

진안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한국생활개선회연합회 연시총회 및 과제교류'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제17대 생활개선회연합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각 읍·면·읍면 소개를 시작으로, 2026년도 주요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겨울철 추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 과제 교류이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희연 한국생활개선회 진안군연합회장은 "회원들이 농촌 여성 리더로서 깊은 자긍심을 갖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진안군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번암면, 마을방문 통한
기본소득 신청 독려

장수군 번암면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면내 32개 전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주민 대상 현장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어촌기본소득 번암면 접수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면장과 면직원들은 각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신청 방법과 지금 방식,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렵거나 면사무소 방문이 쉽지 않은 고령 주민들을 고려해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현장 설명에 참여한 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설명해 줘 이해하기 쉬웠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경찰서, 현장경찰관
안전관리 교육 강화 시행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통사고 처리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중심으로 사고 유형별 현장 대처 방법,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112신고 등 현장 출동 시 경찰관의 심적 대비와 초기 대응 요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관리자가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교육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임실경찰서는 모든 순찰팀장을 대상으로 매월 3회에 걸쳐 현장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 및 각종 신고 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류관송 서장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며 "관리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험요인을 놓치지 않고, 경찰관이 안전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들 숨통 틔운다!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 본격

3천만원 보증 연 5% 이자지원

무주군이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 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엉겅퀴 K-기능성식품 고부가가치 육성

국내 최초 엉겅퀴 성분지도 완성

임실군이 대표적인 자생 약용식물인 '임실엉겅퀴'를 지역농특산품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K-기능성식품으로 적극 육성한다.

군은 임실엉겅퀴가 간 건강 개선 등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받으며 기능성식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엉겅퀴는 예로부터 간 기능 보호와 해독 작용에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실리마린(silymarin) 성분을 함유해 간세포 보호와 항산화·항염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돼 왔다.

최근에는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증진 등 기능성까지 주목받으며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차, 분말, 추출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임실군은 이러한 엉겅퀴의 과학적 효능과 정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지역 자원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능성식품 원료 중심의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약 20년간 연구하며 세계



최초로 생육 시기와 부위별 성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엉겅퀴 성분지도'를 완성하여 원료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이는 단순한 1차 농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브랜딩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6차 산업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임실 엉겅퀴의 기능성식품 산업화는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원료 재배부터 가공·상품화까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산업 구조는 지역경제 선순환과 자립형 산업기반 구축에

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능성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속에서 '임실 엉겅퀴'는 지역적·지역적 브랜드 정체성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건강기능식품 인증과 연구개발(R&D) 연계 시 전국 단위의 물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엉겅퀴를 비롯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농식품 연구·기공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 브랜드 육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경영 안정·지역경제 회복 기대

장수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돋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장당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며 대출이자율의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증이 지원된다. 상한 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일반·무도 유통주체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특례보증 제외 업종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자 지원 신청은 장수군청 농산업체정책과 지역경

제팀(063-350-2182)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성평등가족부 주관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평가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이 성평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청소년 수련관 부문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로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전국 청소년수련관 203개 중 20개 시설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우수한 운영과 함께 자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에 서의 유관 기관 협력체계 등을 인정받은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시설과 폐적 환경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 전북도 내에서는 선진적으로 청소년 정책 환경 마련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안=전길빈 기자



특히,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임실군, 혈액투석환자 이동 부담 덜어준다

주 2회 이상 투석환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원

임실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혈액투석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에 인공신장실 부재로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혈액투석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혈액투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 등 구비서류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장기입원자와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지원

지역 내 치과의원 5곳과 시술 협약

무주군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치(틀니, 인플란트)' 지원을 위해 15일 무주읍 '정치과의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연합치과의원', '서울온정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안성면 '100세 치과의원'과 시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반으로 각 치과의원에서는△대상자들의 시술 전 구강 검사와 치아발치, 치주질환 치료 등을 진행하고 △의치 시술, 장착 및 시술 완료에 대한 의치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수급자 및 차

/무주=최의호 기자



최후식 장수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현장 점검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최후식 장수군수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접수 초기 민원인이 접수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군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수군은 접수 창구 훈련을 완화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해 본청 각 부서 인력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등 부서 간 협업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전문가 컨설팅 추진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을 앞두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업 미생물을 보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 분야 박사(송재경 박사)와 전북대학교 농축생태환경연구소 소속 박사(이덕화 박사) 등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여, 미생물 생산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해온 농업 미생물을 대상으로 활용 노하우와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시설 점검을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초산로발전협, 이웃돕기 성금 140만원 기탁

정읍시 샘고을시장 초산로발전협(회장 안점용)가 지난 14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4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초산로 일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이 협의회는 평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성금 역시 상인들이 얻은 수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뜻을 모아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읍시 지정기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상인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통기타동호회 '로그인', 장학금 100만원 기탁

익산 지역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통기타 동호회 '로그인'이 새해를 맞아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로그인은 15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재)익산 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율)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호회의 정기 공연, 버스킹 활동을 통해 모은 수익금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됐다.

전달된 기탁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에는 음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해 온 동호회의 창립 취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로그인은 지역 축제 참여와 재능기부 공연을 펼쳐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로그인 관계자는 “회원들과 즐겁게 연주하며 모은 정성이 지역 학생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규래씨 가족, 22년째 손자들과 적십자사에 기부금 전달

손자손잡고 시작한 기부, 가족의 연례 나눔으로

22년째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임규래씨와 그의 손자들이 올해도 돼지저금통을 들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찾았다. 손자들과 손을 잡고 시작한 작은 저금은 어느덧 가족의 연례 나눔으로 자리 잡았다.

임규래씨는 22년 전 손자들과 함께 돼지저금통 기부를 시작한 이후 매년 1년 동안 모은 저금액을 직접 전달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오

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먼저 기부하려 가지고 말할 만큼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도 권순범(기전중학교 2학년) 군과 유경곤(하가초등학교 6학년) 군은 지난 1년간 돼지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돼지저금통에 모인 금액은 474,300원으로 전북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규래씨는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정혜민 기자



22년째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임규래씨와 그의 손자들이 올해도 돼지저금통을 들고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찾았다



이인재 부뚜막 대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15일 안천면에 위치한 음식점인 부뚜막에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 달리며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뚜막 이인재 대표는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성원을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정진하는 지역인재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준성 이사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기부금을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달 해주신 장학금은 진안의 미래를 밝힐 인재들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사업뿐 아니라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한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회, 전주 어르신들에 모시떡 나눔

어르신들께 감사 마음 전하고 이웃간 온정 나눔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회(회장 임종근)가 주최하고 (사)세계여성 평화그룹 전주지부(사무국장 백순선)가 공동으로 주관·후원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모시떡 나눔 행사'가 15일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통 음식인 모시떡을 매개로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청소년선도회 임종근 대표는 “이번 나눔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완주구이면 대원사, 떡국 행사수익금 500만원 기탁

완주군 구이면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가 떡국 한 그릇의 정을 나누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대원사가 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새해맞이 떡국 행사에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구이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대진스님은 “새해를 맞아 이웃

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의 정을 나누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호순 위원장은 “대원사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구이면 취약계층을 위해 공정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영학금-불교마을기금’ 기탁, 금2,000만원…‘영학금 일액한원’ 무주명가 김민주

무주명가, 장학금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지역사회와 나누는 삶 귀감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한식 전문점 ‘무주명가’의 김민주 사장은 지난 14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 등 총 2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민주 사장은 “주민 여러분 덕분에 장학금에 앞장서 10년 세월을

넘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며 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명가는 지난 2019년부터 6백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불우 이웃돕기와 학생 교육에 힘쓰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완주군 상관면, 익명 기부자 이웃사랑 실천

완주군 상관면에 익명의 기부자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기부금 8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상관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명의 기부자는 매년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좋은 곳에 써 달라”는 뜻을 전했다.

국혜숙 상관면장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익명의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상관면은 나눔과 배려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눈에 보이지 않는 멀은 그림자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기상예보와 교통정보 확인



차량 수시로 점검
(타이어 상태확인, 안전장치 장착 등)



감속운전, 서행 운전
(특히 다리 위, 고가도로, 터널)



차 간 거리 2배 이상 유지
(앞차 타이어 자국따라 운전)

〈一事一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논쟁, 해답은 분산에 있다

김관춘
주필

다시 한번 강조컨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은 '이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 전략산업을 어디에, 어떤 조건에서 배치해야 지속가능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것은 이 논쟁이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공론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리스크는 이미 수차례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다수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초대형 반도체 단지를 집적하는 방식이 전력과 용수, 환경 부담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이며, 특히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전력 자급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용수 확보 역시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단기적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지방으로의 분산 배치 외에는 근본적 해법이 없다.

중요한 사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SK의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곧, 임지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 회복 국면에서 조속한 양산 체제 가동이 절실히지만, 용인에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반대로 전북과 새만금은 비교 우위가 분명하다.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안정적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제·행정 지원, 주거와 정주 환경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

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은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지'가 된다.

이 논의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용인의 문제를 전북이 대신 떠안겠다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의 첨단산업 유치는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반사이 이아니라, 전북이 가진 고유한 경쟁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상징적 과제가 바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전주를 포함시키는 일이다. 현재 정부 구상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명백한 정책적 공백이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되려면 '전주-광주-부산-구미'로 이어지는 4극 체제로 재설계해야 한다.

전북, 특히 전주는 전력반도체 산업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전력반도체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며, 그 핵심 소재인 탄소(SiC) 산업은 이미 전주에

집적돼 있다. 상용차, 농기계, 배터리, 로봇 등 전력반도체의 주요 수요 산업 역시 전북에 밀집해 있다.

부산이 전력반도체 거점으로 기능한다면, 전주는 후공정과 양산 체제를 담당하고 이를 피지컬 AI 실증단지와 연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는 산업 논리와 공간 전략 모두에서 합리적인 분야 구조다.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리스크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며,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전북과 새만금은 이 위기를에너지 전환과 산업 분산을 통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다.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 그 비교우위는 이제 분명히 새만금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환경 변화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은 반도체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투자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 에너지와 물, 인력, 물류, 안보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임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에 기반한 기존 산업 배치 모델은 이러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반면 새만금은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대응 역시 용이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

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새만금 이전 논의는 단순히 반도체 한 산업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전력반도체로, 수도권 집중에서 권역별 기능 분담으로, 학석연료 의존에서 에너지 전환 기반 산업으로 이동하는 전략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전북이 제시하는 새만금 모델은 생산기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연구·실증·양산이 결합된 완결형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방 이전 정책과도 결이 다르다. 정주 여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수도권의 주거 비용과 삶의 질 문제는 이미 기업 경쟁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비용과 폐쇄된 환경, 충분한 공간을 바탕으로 계획 단계부터 '사람 중심의 산업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인력 확보와 산업 지속성 측면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반도체의 미래를 수도권의 한계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다음 30년을 설계할 것인가. 답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에 기반한 기존 산업 배치 모델은 이러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반면 새만금은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대응 역시 용이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요구하는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려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군산조선소 재도약이라는 세 갈래 전략을 통해 전북을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역 협력 아니라, 전북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종합 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선택지다. 김 지사가 강조했듯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의 행정 편의적 접근과는 다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통합은 생존과 도약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적 판단이다.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잠재력을 전북의 중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은 통합을 둘러싼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한 메시지다.

통합을 통해 피지컬AI 메시지라는 미래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 역시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혁신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남은 것은 완주군의회의 역사적 판단이며 이는 지역의 이해를 넘어 전북 전체의 미래를 향한 결단이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전략 또한 전북의 비교우위를 정확히 짚은 선택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집적부지, 그리고 축적된 연구·인력 인프라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분산형 반도체 전략에 부합한다.

전력과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에서 전북은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전북 산업 지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산조선소 재도약 구상도 의미가 크다. 지난 3년간 조선산업 생태계를 지켜낸 노력 위에서, 군산조선소를 국가 전략 산업과 한미 안보 협력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국가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완전 재가동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김 지사가 강조한 여민유지의 자세처럼, 이러한 구상은 결국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통합은 더 나은 행정과 생활 여건으로, 반도체와 조선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협력으로 체감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러한 대전환의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 내부의 충분한 숙의가 병행돼야 한다. 지방주도성장은 지방에 책임과 권한을 넘기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요구한다.

통합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돼야 하고, 반도체와 조선 산업 육성 역시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인재 양성과 중소 협력업체 등반 성장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의 도전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의 선택을 미룬다면 더 큰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도정의 일관된 추진력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관영 지사의 의지와 구상이 실현돼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시

돌아가는 길 / 문정희

돌아가는 길
다가서지 마라
눈과 코는 별씨 돌아가고
마지막 흔적만 남은 석불 한 분
지금 막 완성을 꾀하고 있다
부처를 버리고
다시 돌아 되고 있다
어느 인연의 시간이 눈과 코를 새긴 후
여기는 천년 인각사 뜨락
부처의 감옥은 깊고 성스러웠다
다시 한 송이 돌로 돌아가는
자연 앞에
시간은 아무데도 없다
부질없이 두 손 모으자마라
완성이라는 말도
다만 저 멀리 비켜서거라

시인 악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찔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독자광장

보이지 않는 전기 위험, 꼭 돌아봐야 할 일들



겨울은 난 방 기구 사용이 늘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불꽃이나 연기 같은 눈에 보이는 위험에는 민감하지만, 실제 화재의 상당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에서 시작된다.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전기 화재'를 경계해야 한다. 작은 불씨가 아니라, 과열·스파크·노후 전선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화재는 예고를 주지 않는다. 냄새나 연기가 감지될 때쯤이면 이미 화재가 꽤 진행된 뒤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어발식 멀티탭', '피복이 약간 벗겨진 전선', '침대나 소파 아래에 놀린 콘센트', '장시간 켜둔 전열기'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전기화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최근에는 리튬배터리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를 하루 종일 충전기에 꽂아 두거나 침대 위에서 충전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결국 열폭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은 집 안 곳곳에 숨어 있지만,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불은 예고 없이 시작된다.

간의 열, 한 번의 스파크, 잠깐의 부주의, 이 모든 것이 큰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불조심 강조의 달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 속 전기위험을 제대로 바라보고 바로 잡는 일이다.

멀티탭은 문어발식 사용을 멈추고 열이 나거나 그을린 흔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선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바로 교체해야 하고, 전열기구 주변은 반드시 불연성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보조배터리는 침구류 위에서 충전하지 말고, 과충 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용 중 발열이 심하면 즉시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예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화재 발생 후 1~2분 사이에 연기와 열은 순간에 번지고 시야가 가려져 대피가 어려워진다. 이 순간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조차 판단이 흐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반드시 대피계획을 미리 세워 둬야 한다.

대피계획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집 안에서 가장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어디인지, 대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가족 중 누가 먼저 상황을 알릴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다. 특히 "어떤 경로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전기위험을 다시 보자. 조금의 귀찮음을 참고, 우리 집의 안전을 직접 점검해보자.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내가 지키는 안전이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더 안전한 겨울이 될 것이다.

/전주덕진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장 소중한

본 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택진로77(전북동) 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사 010-8841-7942	무주지역 010-8411-0835
중원지사 010-9878-4271	남원지사 010-2285-3987	부안지역 010-7247-3947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사 010-9560-3075	고창지역 010-2258-3734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사 010-4572-6112	진안지역 010-2433-1721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사 010-2800-2934	장수지역 010-8626-6049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시의 올림픽 유치를 향한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후 시민 참여 확대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 체육 인프라 구축과 대회 운영 경험 축적이 동시에 진행되며 유치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주시는 경기 개최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예술, 관광 자산을 스포츠와 결합하는 '문화올림픽' 구상을 통해 대회 이후에도 도시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전주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문화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문화올림픽' 내건 전주, 올림픽 유치 준비 본격화

체육 인프라·시민 참여 국제 교류 '삼박자' 준비

▲ 전주올림픽 중심된 복합스포츠타운 구축 본격화 전주시의 전주올림픽을 향한 준비 과정이 구체적인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시민 참여와 국제 흐름을 반영한 준비 활동을 병행하면서 외형과 내용이 동시에 정비되는 모습이다.

전주시 올림픽 유치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조성 중인 '전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전주올림픽 유치의 실질적 기반이 될 핵심 체육 인프라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심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올림픽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도시에 선 체증으로 전주에서 개최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6천여 명이 전주의 거리를 달리며 올림픽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올림픽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시민 참여와 더불어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에 풍부한 선진 도시를 직접 방문해 대회 운영 방식과 경기장 활용, 사후 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유치 전략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에서 지속 가능한 경기장 조성과 올림픽 준비 과정을 견학했고, 멜번에선 1956 올림픽의 유산을 문화·관광 지원으로 재생한 사례를 분석했다. 국제 스포츠기구 및 관련 기관, 교민사회와의 접점 확대 역시 이런 방문 활동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후의 행보는, 전주가 올림픽 유치를 일회성 도전이 아닌 중장기 도시 전략의 한 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각종 국제 대회 개최와 체육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어지며 올림픽 유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 올림픽 이후까지 내다본 전주의 스포츠 도시 전략 전주시는 다수의 국제·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치르며 올림픽 개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고르게 유치하며, 경기 운영과 행정 대응 전반에 대한 경험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2025 한 해 동안 전주에선 아시아 청소년 넷볼 선수권 대회(6월), 전주컵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8월), 전주 코리아 오픈 국제 주짓수 대회(9월),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11월) 등 국제 대회와 함께 22회의 전국 규모 체육 대회가 열렸다.

올해도 시는 아이스하키, 배구, 유도 등 총 21개 종목에서 26개의 국제·전국 규모 체육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대회를 통해 경기 운영 체계와 행정 대응 경험을 축적하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 운영과 협업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회 운영 경험은 복합스포츠타운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체육 인프라의 활용과도 맞물린다. 실제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설 운영 방식과 동선 관리, 관람 환경 개선 등 인프라와 운영 경험이 동시에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단일 이벤트가 아닌, 대회 이후까지 내다본 장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경기장과 관련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단계부터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올림픽 개최 시 주요 경기 공간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대회 이후에는 국제·전국 규모 체육 대회와 전시·전시회, 생활 체육 활동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 일정이 없는 기간에도 시민 이용과 각종 스포츠 행사가 가능하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 시설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다. 시는 올림픽 개최가 일회성 이벤트로 남지 않고, 체육과 관광, 도시 활동 전반으로 이어질 기반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올림픽이 만든 변화가 도시의 장기적 유산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장정철 기자